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인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사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사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부르심에 합당하게

본문: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로 3대 중요도시(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의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웠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신자(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3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도리를 말합니다. 4-6장은 교회의 행위와 투쟁에 대하여 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출애굽기 3:9-12; 4:1-17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과 ‘불순종’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사명자’,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신 후에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모세는 자신은 무능하여 할 수 없다고 반응합니다(출애굽기 3:1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지금도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이사야 6: 8절)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던 일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마가복음 1:16-20절). 2022년 현재도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명자임을 감사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3.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주하는 곳의 사정을 알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1절).

본문 에베소서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빌립보서 2:3절). 둘째, 남을 배려하며, 긍휼을 베푸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으로 용납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12-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예수님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에베소서 4:13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자(성도)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신자(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어떻게 말합니까?
2.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개속을 걷기”

미국 캘리포니아의 ‘벤추라’라는 작은 마을에 이사를 온 가정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둘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낯선 곳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길을 익히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두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주변 지형지물을 일일이 설명하였습니다. “얘야, 여기는 철조망이 있어, 조심해야 해.” “이쪽은 길이 굽어 있단다.” “여기는 길이 두 갈래인데, 오른쪽은 차도니까 조심해야 한단다.”

얼마 동안 엄마는 아이들에게 학교로 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도 학교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렵풋하게 앞을 볼 수 있던 다니엘은 엄마의 말을 소홀히 여기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딸아이 게일은 엄마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게일에게 엄마의 말은 생명이고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준 것을 자세하게 마음에 담아서 그 말대로 길을 따라 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짙은 안개가 그 마을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약간의 시력으로 자신 만만하게 걸어갔던 다니엘은 짙은 안개 속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담장에 부딪힐 때마다 비명을 지르다가 나중에는 누나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게일은 안개가 끼었든, 햇빛이 나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만 발을 옮겨 놓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끼었지만, 게일에게는 길이 환히 열려 있었습니다. 비록 눈은 감았지만, 게일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조금 앞을 볼 수 있다는 영뚱한 자신감을 지니고 삶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말씀을 읽어도 대충 읽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깊은 안개가 덮이고 나면, 그제서야 자신이 가진 지혜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THINK

당신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요일예배 담당안내					
담당	3월 2일	3월 9일	3월 16일	3월 23일	3월 30일
마을특송	손숙희 권사	이순희 권사	전진희 권사	한선미 권사	안병자 권사
대표기도	행복한	샘솟는	섬김	살롬	온유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3월 5일	3월 12일	3월 19일	3월 26일	4월 2일
본당청소	행복한	샘솟는	섬 김	살롬, 청장년	온유
중식봉사					

주요광고

1. 좋은이웃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혜롭고 성숙하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2. 월요목양새벽기도회 / 일시: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 마을장,목자,교사,임원은 필참입니다.
3. 목장사역센터 / 각 목장의 목자들은 매주 출석 확인하여 목장사역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교회 대청소 / 일시: 3월 1일(화) 오전 10시 / 해당 구역은 목자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5. 학습세례자 교육 / 일시: 2월 27일(주일)부터 5주간 / 마을.기관은 인원을 보고바랍니다.
6. 총동원가족주일 / 일시: 3월 6일(주일) 오전 9, 11시 / 장소: 3층 본당
7. 1층 누수의 원인을 찾아 주방 바닥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주방이 다 정리될 때까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참여,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서 [안수집사] 추가 사진 촬영이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우소식

환우들을 위한 치유 중보기도

김수차 권사/유수림 권사/김해생 권사/이문형 장로/김진석 집사

김태인 집사/이명옥 권사/한정희 권사/이향숙 사모/유춘자 권사/조병양 집사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신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